#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

## (요나 1장 1절~17절)

1.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동네에 살고 있던 이삭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워하는 마음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보여 주시는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경외"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후에

본문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9~1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고 선원들은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바다에 던질 사람을 제비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믿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들은 요나를 추궁하였고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내용과 선원들의 반응이 9~10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본문의 앞선 구절들에서도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칭하는 요나에게서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는 마땅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나타났고 본문은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손색이 없는 하나님 경외에 대해 마지막 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 경외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 경외를 통해 삶의 터전에서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경외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외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란 곧 하나님이 내게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는 곧 좋아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젊은이에게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MT를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학교의 선배나 동료들이 혹시 여자 친구와 마음이 맞게 되어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 대상이 없어질까 혹은 내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한편 공포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란 경외와 반대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일이 내게 생기거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입니다. 강도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묻지마 살인자가 동네에 활보한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경외하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두려운 것이 경외이고 있으면 두려운 것이 공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떠는 마음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경외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벌어들여서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면 지구에 있는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마음은 항상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을 벌게 해주고,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미움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았습니다. 경외의 마지막 고비는 바로 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뿌리에는 좋아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미움을 발생시키는 좋아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기에 생겨난 미움이기 때문에 그 뿌리인 좋아함의 문제가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함이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 대한 좋아함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동안 죽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 생활화를 해도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경외의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막는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는 바로 그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요나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듯이 잠을 청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친밀해서 내 살처럼 되어버렸기에 나 자신과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친밀해서 마음의 밑바닥에 살처럼 되어버린 이 좋아함이 제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좋아함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의식하거나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통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좋아함의 존재를 들추어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좋아함이라는 뿌리를 가진 미움이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앗수르가 등장합니다. 앗수르는 강대국이었으나 주변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무력을 바탕으로 삼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BC.841년경에 예후 왕이 다스리던 시절 북 왕국 이스라엘도 앗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뒤에 요나가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대로 앗수르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심판으로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멸망을 시키셨더라면 요나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멸망에 앞서 구원을 주시려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나로써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일본의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도 크게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양심이 있기에 차마 사람까지 죽으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라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앗수르가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외치라니 싫었습니다. 행여나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큰일 아닙니까?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석이나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요나서는 선민의식의 배타성이나 편협한 민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해석이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인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민들의 역사를 통해서 편협한 민족주의와 잘못된 특권의식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요나서가 주제로 삼은 것은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편협한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미워하는 대상에게도 기꺼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니느웨의 60만 주민이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앗수르를 미워하기에 앞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삭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의 의식 안에 숨겨져 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동안 그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인식 밑으로 묻히고 망각되고 맙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살처럼 붙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만의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닌 공포입니다. 다만 요나 자신도 이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했고 경외의 마지막 단계에 걸려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 이유는 그 밑바닥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살처럼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밑바닥에 살처럼 붙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경외하고 있었던 대상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손해를 입는 것이야 말로 요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앗수르는 이렇게 소중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앗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있었던 요나가 모르고 있었던 장애물을 꺼내어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살처럼 밀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여겼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이삭이라는 존재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없어질까 두려워하기에 마땅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을 실제로 바치고서야 신앙의 고비를 뛰어넘어 하나님 경외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미워합니다. 혹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망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단체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미움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 미움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른 무엇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니 공산주의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 발생하는 뿌리에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 수상이 하는 일이 국제사회에서도 유래가 없는 질서 파괴적 행위이기에 미워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깁니다. 미국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한국 앞에서만 유난을 떠는 아베 수상의 행동은 한국인들의 미움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요나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고 내 소중한 인생과 몸이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함이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들이 너무도 친밀하여 살같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도 이를 간과합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명백한 문제로 인지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너무도 밀접해져서 살이 되어버린 대상들에 대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마치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듯이 십자가 생활화의 사정권 바깥에 방치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상들을 들추어 내시기 위해서 미움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때에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에 앞서 미움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되는 대상을 찾아내어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미움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내면에는 좋아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 좋아하는 것에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미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그 좋아하는 대상들은 요나가 배 밑바닥에 숨어서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 밑바닥에 숨어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할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를 통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앗수르에 회개를 선포할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가겠다고 순종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거부할 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요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앗수르의 구원이 아닌 요나의 마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나 자신도 모

르게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 것들을 들춰내시기 위하여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앗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미워하게 하는 이유로써 존재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시스로 향하던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난 셈입니다.

여기서 선민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선민은 이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에 보내었을 때에 삶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으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양이 바쳐지는 상번제를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선민으로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최고최선의 방법은 나도 모르게 살처럼 되어버린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삭에 대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의 마음과 일체가 되어버린 배우자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풍랑을 마주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했기에 배우자가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민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늘을 좋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듯이 하늘이 아닌 세상으로 마음을 보낸다면 그 자리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앞에서 하나님 경외를 완성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미워하는 모든 대상과 일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질병조차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건강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섭리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질병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밉게 여기는 이유가 되는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경외는 완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를 완성한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써 할 일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장님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임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요나의 미움을 통하여 우리의 미움을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움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경외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내 살처럼 되어버린 대상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들에 대해 십자가를 꽂고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 경외가 완성되고 하나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